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자



정옥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1960년 4월 내가 다니던 동대문 밖 송인동의 동덕여고는 온갖 봄꽃이 피어나면서 소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 평온한 일상을 뒤엎은 사건이 18일 고려대학교 대학생들의 합성이었다. 안암동에 있던 고려대 학생들이 시내로 들어가기 위하여 신실동을 거쳐 우리 학교가 있던 송인동을 경유하여 동대문 쪽으로 향했던 것이다.

이 후 전개된 상황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느낌이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정권 연장을 위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젊은이들의 항거는 시민은 물론, 교수사회까지 합세하게 만들었다. 경무대로 향하던 학생들에게 발포 명령까지 떨어지고 결국 피를 보고나서야 이승만 대통령은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하였다.

4·19는 그야말로 학생들의 순수한 의거였다.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이 없는 자연 발생적인 혁명이었다. 정치권은 외무부장관 허정을 수반으로 과도정부를 구성하여 정권을 야당이던 민주당에 넘겼다. 야당은 파벌싸움에 열목지고, 수권능력이 부족하였다.

더구나 직전에 조병옥, 신익희 같은 거물 지도자들을 잃은 상태에서 구심점이 약했고, 사회 전반에 팽배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추슬러 국가 동력으로 무기엔 역량이 미약하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컸으나 아직 훈련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 후 개혁 열풍은 국가 전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그 열풍을 비켜간 분야는 거의 없었던 듯싶다. 나는 공교롭게도 학생회장이 되어 있었다. 고려대 학생회장의 부름을 받고, 고등학교-대학교 학생회장 모임에 참석하였지만 여고생도 참여한다는 명분과 머릿수를 채우는 역할에 불과하였다.

정작 문제는 학교 안에서 일어났다. 학생회에는 학생들의 개혁 요구가 물밀듯이 터져 나왔다. 나는 그 중에서 감정이 묻어나는 내용은 회의를 통해 걸러내고, 학교에 보고

하거나 건의하는 방식을 취했다.

개교한 지 50년이나 된 학교라 오래된 문제점들이 누적되어 있었지만 학교당국은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한번 터진 불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다. 그 와중에서 나는 갈피를 잡으려고,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사태는 악화되어 결국 동맹휴학으로 치달았다.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협박편지였다. 학생들의 사상이 불온하다는니, 빨갱이들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니 하는 황당한 내용이었다.

10월 어느 날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전교생이 도열한 가운데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고, 학교의 조치를 받아들이는 일종의 의식을 치르고 나서야 사태는 끝났다. 내가 시작한 일도 아니고, 학생회의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일인데 모두 내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왔다.

대학입시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학생회 간부들은 하나 둘 중도에 하차하고 나 홀로 남았다. 나의 문제는 남들이 물러설 때 슬그머니 물러서지 못하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압박증이었다.

그러나 이 일은 개인의 영역에서 맴돌던

나의 의식을 확대시켜 사회정의에 대한 최초의 각성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20년도 훨씬 지나서 서울대 교수 시절 군부 독재타도를 외치던 제자들을 이해하게 된 열쇠가 되었다.

4·19혁명은 민족자존에 대한 깨달음을 물고 왔다. 또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학생과 지식인이 주도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인 4·19혁명은 그 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학생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3·15 부정선거에서 촉발되었지만 자유, 민주, 정의에 대한 열망이었으며 통일, 자주, 변혁 등으로 그 지향점은 계속 확대되면서 민주화운동의 초석이 되었다.

미완의 혁명인 4·19혁명은 지금도 진행형이고, 앞으로도 그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정의에 대한 높은 관심, 타성에 젖은 기성의 질서나 기득권세력에 대한 통렬한 비판의식, 민족자존의식, 통일에 대한 열망 등 그 정신만은 오늘날에도 맥맥히 살아있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구심점이 되고 있다.

4·19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혼을 지키는 길이다.

의료칼럼

5월의 신부를 위하여



이상혁 SM美성형외과 원장

결혼식에서 가장 큰 주인공인 신부! 하객들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신부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건 모든 여자들의 공통된 희망사항이다. 아무리 바빠도 단 한 번뿐인 결혼식 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한 노력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평소에는 특별히 신경쓰이지 않았던 얼굴의 결점들이 웨딩촬영과 결혼식을 앞두고 유난히 눈에 도드라져 보여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이 같은 조금씩 닳아 쳐올엔 한두 곳의 약간 맘에 안 드는 정도지만 이곳저곳 따져보면, 정말 고치고 싶을 정도로 신경쓰이는 부분이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예식 날은 다가오고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해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많다. 어떻게 하면 티 안 나게 맘에 들지 않는 곳을 손볼 수 있을까 궁리하는 예비신부들을 많이 보아왔다.

최근 결혼 전 관리 트렌드인 '날씬하고 어려보이기' 위한 뽀뽀성형이 결혼 전 필수 코

스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뽀뽀성형은 칼을 대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시술 시간이 짧고 시술 당일 활동에 거의 지장이 없으며, 2~3일 정도 지나면 부기도 없어져 자연스럽게 성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신부들이 선호하는 뽀뽀성형은 사각턱 보톡스 주사 시술과 필러를 이용한 주사 시술이다. 보톡스는 시술부위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원리로, V라인 보톡스는 근육수축을 억제 시키면서 근육의 힘을 약화시켜 근육 발달로 턱이 각져 있는 경우 빠르게 V라인이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간, 이마 등의 표정주름을 퍼주기도 한다.

필러 시술은 볼륨이 부족한 피부에 채워 넣어서 얼굴에 입체감을 준다. 과거에는 팔자 주름, 이마 주름 등의 주름이나 함몰된 흉터 등에 주로 쓰였지만, 요즘은 눈 밑 애교 만들거나 코를 높여주는 용비술, 입술 확대, 볼살 확대 등에도 시술 전보다 밝고 어려보이는 인상을 주는 효과가 있다. 시술 시간이

5~10분 정도로 짧고 보톡스 시술과 마찬가지로 시술 흔적이 거의 남지 않아 짧은 시간에 예비지기를 원하는 예비신부들에게는 적합한 시술이다.

아무리 간단한 뽀뽀성형이라고 해도 각각의 장단점 및 주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신중히 선택해야 하며, 뽀뽀성형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작용은 식약청의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비의료기관에서 불법적인 시술을 받을 경우 많이 발생한다. 또 비의료인은 공업용 실리콘을 쓰거나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확률이 높아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다. 또한 시술 후에는 되도록 시술 부위를 건드리지 않아야 하며, 3~4일간은 음주나 과격한 운동 및 사우나 등은 자제해야 한다. 뽀뽀성형은 결혼식에 앞서 한두 달 전에 미리 시술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社說

KTX도 호남 푸대접 더는 좌시할 수 없다

고속철도(KTX)가 운행을 시작한 지 9년이 됐지만 호남 푸대접은 여전하다고 한다. 호남선과 전라선은 고속철도가 개통된 경우선과 달리 기존 선로를 이용하는 사실상 '반쪽 고속철도'로서 저속철인 데다 운행 횟수도 경부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통합당 김동철(광주 광산 갑)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운송자료에 따르면 KTX의 경우 경부선 주중 평균 운행 횟수는 147회(73.3%), 호남선 42회(20.8%), 전라선은 12회(6%)에 불과하다. 주말 증차율 역시 경부선은 24회를 증편 운행하고 있고, 호남선은 2회 증편에 그치고 있다. 전라선은 단 1편도 주말 증차 운행이 없는 상황이다.

저속철인 데다 고장이 많은 KTX-산천도 문제다. KTX는 서울에서 톨대구 역까지 1시간 4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서울에서 광주역까지 2시간 50분, 목포

역까지 3시간 10분이 소요돼 이용객의 저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고장이 잦은 KTX-산천을 호남선 노선에 집중 투입하고 있는 것도 '푸대접'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눈물의 호남선'은 호남에 대한 흠대를 떠나 무시하는 처사나 다를 바 없다. 철도공사 측은 호남선의 이용객이 경부선보다 떨어져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이는 변명일 뿐이다. 저속철 탓에 이용객이 고속버스나 비행기에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것인가.

특히 고속철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경제성능을 높이고 교통편의 제공 등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건 기본 상식이다.

정부는 호남선의 고속화와 조기 개통은 물론 시급히 증편 운행을 해야 한다. 인사 소외도 모자라 호남선마저 흠대를 계속한다면 호남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발 AI 비상, 차단 방역에 매진해야

중국에서 발생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기미를 보이면서 전국의 지자체 방역 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전남지역의 경우 하루 150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이 입국하는데다 축산농가도 많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에서 지난달 말 신종 AI 감염 사실과 사망자 발생이 처음 알려진 뒤 지금까지 28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돼 이 가운데 9명이 숨졌다. 조류에만 걸리던 H7N9형 AI가 처음으로 인체에 감염된 것이어서 중국은 물론 인근 국가들까지 공포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H7N9형의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조류가 감염되는 바이러스로부터 변종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치료제는 없지만 중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는 H7N9 AI가 사람을 통해 전염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해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전남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축산농가도 많아 AI 유입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국제선 모두 중국 노선 뿐인 무안공항 측은 중국 관광객이 대거 출입하기 때문에 AI 유입경로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 관광객은 하루 150명이 넘어서고 있다. 게다가 오는 20일 순천만국제제철원박람회 개막되면 중국 관광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게 뻔하다. 특히 정기노선인 상하이는 AI의 진앙지이다. 무안공항 측은 입국장에 열 감지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AI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나 보다 세심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하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다. 전남도를 비롯한 방역당국이 축사와 철새 도래지에 대한 AI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축산농가 스스로도 매일 축사를 소독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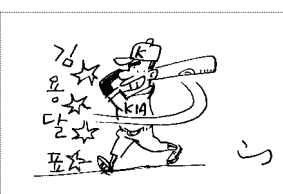
無等鼓

'4월은 잔인한 달'이지만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찾아온 프로야구 개막은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 있다. 지역연고 팀인 KIA가 개막이후 선두를 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주전들의 잇단 부상으로 힘든 한 싸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가을 신치를 포기했던 KIA를 생각하면 환골탈태한 모습이다. 특히 9개 구단 중 득점, 타점, 타율에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2사후에 득점의 50% 이상을 뽑는 집중력까지 갖춰 우승 후보 0순위의 위용을 보여주고 있다.

김 코치의 타격에 관한 전권을 갖고 있다. 경기전 선발라인업 구성에 대해 선동렬 감독이 김 코치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선 감독은 김응달 코치를 전폭적으로 신뢰한다. 마무리 캠프와 스프링캠프에서 쉬는 날도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며 1:1 훈련을 했던 김 코치의 성실성과 열정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용달매직과 소통



개막 후 '50억 사나이'의 진가를 발휘하며 5월에 가까운 불발망이와 해결사 역할을 했던 김 주찬이 불의의 부상으로 5월말까지 개점휴업해야 하는 악재도 있지만 KIA의 상승세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 '만년 기대주' 신종길이 김주찬의 빈 자리를 완벽히 메우며 역시 불발망이를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KIA의 초반 '빅뱅타선'은 올해 새롭게 타격 조련사로 KIA에 부임한 김응달 코치의 매직으로 불리기도

국내 프로야구에서 최고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선수들과 대화와 소통으로 선수들이 자신의 지도력을 거부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선동렬 감독도 올해 타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선수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자"며 소통과 대화의 지도방식을 코치들에게 주문했다. 이와같은 대화와 소통이 KIA의 초반 질풍의 원동력인 셈이다.

박권 초반 '불발대통령'으로 불리는 박근해 대통령이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KIA 코치스태프의 소통과 대화의 리더십을 배워야 할 것 같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기고

지역의 원로들께서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닐까요?



정희선 청암대 교수

담으로 지난 20년 이상의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행 금융정책 회의는 2년간 132조 엔의 자금을 투입하여 시중 통화 공급량을 2배로 확대하는 등 무기한 양적완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기업들과 국민들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가격은 20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듯 세계 주요 국가들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빠르게 노력하고 있으며 각종 경제 관련 선행지표들이 호조를 보임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어떻게 중요한 시점에서 만족할만한 경제지표를 받아내지 못하고 정치권은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수에 돌아왔습니다. 외국을 돌면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도시 여수의 이미지는 전 세계에 깊이 각인되어있음을 느꼈습니다. 재외동포든 외국인이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대한민국 여수에서 왔다고 하면 세계박람회 개최도시에서 왔다고 크게 환대하였습니다. 월드컵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면 엑스포 이후 여수의 위상이 놀라보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에서 엑스포 이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금품 횡령사건, 경찰관의 금고털이 사건, 여수산단의 폭발사고 등이 이어지면서 여수의 이름이 뉴스 시간을 장식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리다 보니 고향이 여수인 많

은 이들이 고향을 귀찮아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은 시민들이 신뢰하고 의지해야할 신분이기에 이에 실망한 많은 시민들은 이제 공무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사기가 꺾인 공무원들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을 놓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여수시의 모든 행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수는 현재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1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와 엑스포 이후 새로운 특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광객 증가로 시내 호텔과 콘도 등 숙박업소의 평균 투숙률이 90%를 육박하고 있으며, 수산물특화시장과 인근의 식당도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또 10일 후로 다가온 '순천만정원박람회'의 6개월간의 장정은 여수를 세계적인 도시로 다시 한 번 부각시킬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행정에 대한 믿음이 한번 사라진 시민들의 경우 지자체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지만 현재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믿고 협조하는 모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원로 선배님들! 지금이야말로 여수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선배님들께서 나서실 시점이 아닌가요?

누가 원로이냐는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지 모르겠지만 지역에서 행정 관료를 지내신 분, 사회단체 지도자분들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께서는 유리한 지 불리한 지를 따지지 말고 지역을 위하여 지역의 맨 앞에 나서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행정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듯한 일침을,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에게는 따듯한 격려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행정과 시민이 함께 단합하고 협력하는 여수시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수의 미래가 우리 지역의 원로 선배님들의 진심 어린 충정에 달려있음을 믿고 저 역시 여러 선배님들의 뒤를 열심히 따라가 '행복한 도시, 여수!'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에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 치 부 2200-612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디 지 인 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